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2/19(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2/18(月) 11:00부터**

※ 문의 : 거시경제팀 손영기 팀장(6050-3442), 이상현 과장(6050-3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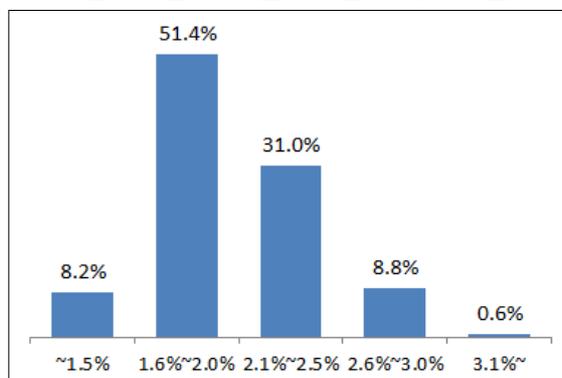
## 기업 60% “올해 경제성장률, 작년 수준 못 넘을 것”

- 대한상의 조사 ... 기업 64% “저성장 기조 3년 이상 지속” 예상
- 새해 경기상황 “정체 내지 둔화 중”(95%) ... 새정부 우선 과제로 ‘경기활성화’(47%) 꼽아
- 경기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44%), ‘금리인하’(26%), ‘세제지원 확대’(22%) 필요

국내기업 상당수가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인 2.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한국은행(2.8%)과 작년 12월 정부(3.0%)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미치는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9.6%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 전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2.1~2.5%’(31.0%), ‘2.6~3.0%’(8.8%), ‘3.1%이상’(0.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기업이 바라본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또, 응답기업들은 잠재성장률 4%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향후 3년 이상’(63.8%)이라는 답변이 ‘2년 내 저성장 탈피’(36.2%)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대한상의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마저 우려되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심화, 경제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해 국내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둔화세는 진정됐으나 정체된 상황'이라는 답변이 55.8%로 가장 많았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도 38.8%나 됐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최근 겪고 있는 경영애로로 응답기업들은 '판매부진'(40.0%), '채산성 악화'(25.2%), '원자재가 부담'(25.2%), '자금조달 애로'(7.8%)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1.8%>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기업들은 '경기활성화'(47.4%)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환율안정'(38.6%), '물가안정'(33.2%), '일자리 창출'(22.6%), '가계부채 문제 해소'(21.2%), '부동산시장 활성화'(11.2%) 등을 차례로 답했다. <복수응답>

경기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재정 조기집행'(4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리인하'(25.7%), '세제지원 확대'(21.6%), '추경편성'(8.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기타' 0.4%>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는 '환율시장 안정'(51.8%), '원자재가 안정'(47.4%), '자금지원 확대'(24.4%), '세금부담 완화'(22.6%), '수출지원 확대'(17.4%) 순으로 답했다. <기타' 0.6%, 복수응답>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이 대외적 불안요인과 함께 가계부채, 내수시장 위축,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적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4(월)~2/8(금)
- 응답업체 : 전국 500개 기업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